

327만마리 살처분 재산피해 1조5천억

전국 146건 발생…공무원 9명 순직

매몰지 침출수 유출 환경재앙 우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석 달 동안 전국 각지로 확산하면서 가축 수백만마리가 살처분되고 조 단위의 재산피해를 냉는 등 전례 없는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비록 광주·전남은 청정지대로 남아 있지만, 다른 발생지역의 경우 살처분한 소와 돼지를 묻는 수천여곳의 매몰지 중 상당수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바탕에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구제역 사태의 종식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 논평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백악이 무효”=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

동시 외룡면 모 약도단지 내 돼지 농가 2곳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이번 구제역 사태는 걸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면서 이미 전국을 초토화했다.

처음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같은 달 23일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으나 방역당국이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가의 거듭된 의심 신고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양성 판정이 났을 때는 이미 경북지역은 물론, 경기도 등지로 전파된 상

태였다는 게 검역당국의 잠정 결론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2400여곳을 설치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과 함께 우제류(소, 돼지 등 밭굽 두 개인 등물) 가축 살처분에 힘썼으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15일 현재 인천, 충남, 대구, 경남, 부산 등 9개 시·도 70개 시·군·구에서 14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살처분된 가축은 소 15만마리, 돼지 311만2000여마리, 염소와 사슴 8000여마리 등 총 327만여 마리에 달하며, 이로 인한 보상금 등 재산피해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는 ‘구제역 청정지’ 지위를 유지하고자 살처분 중심으로 대응하다가 경북에 이어 경기, 강원지역으로까지 확대되자 ‘마지막 수단’인

예방백신 접종을 지난해 12월 2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서 1188만마리(소 355만, 돼지 833만)의 가축이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았고 현재 항체 형성을 높이기 위한 2차 접종이 실시돼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축산농민들은 백신접종이 시작될 때 구제역이 진정되기를 기대했으나 접종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가축 폐사 등 사고가 잇따라 효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차 환경오염 우려”…공무원 9명 순직=구제역 사태로 방역작업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과로 또는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경북에서만 4명의 공직자가 순직했고 경기 2명, 전남 1명, 경남 1명, 군인 1명 등 총 9명이 목

숨을 끊었고 각 시·도별로 수십명씩 병상에 누워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농민이나 수의사가 가축에게 밟히거나 차이고 주삿바늘에 찔리는 등 민간인 부상도 30여명에 달된다.

전국적으로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구제역 후속 대책회의를 열어 소와 돼지 집단 매몰지의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보건단체 관계자는 “봄이 와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이 심화돼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될 수 있다”며 “구제역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이 같은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광주시민 모임’은 15일 오후 광주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흘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문일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동물복지와 농장 동물의 복지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밀집사육이 구제역 초래…유기축산으로 가야” 가축질병 대안 시민토론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밀집축산이 아닌 동물복지형 고품질 축산을 사육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기축산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제역사태 대안모색’을 위한 광주 시민모임’ 주최로 1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열린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강문

일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현 재 밀집사육 시스템에서 질병이 적게 발생하는 동물복지형 고품질 축산물을 사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동물복지와 농장 동물복지동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집약적 생산시스템’으로 축산사육 형태가 변화하면서 가축분뇨와 악취의 발생, 환생제 낭용 등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 논란 등으로 동물복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성만 강조하고 밀집사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현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합의기구를 구성해 질병이 적게 발생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복지형 고품질 축산을 사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식 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동물복지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유기농 신도불이 축산, 생태순환 축산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길에 초록급식연대 공동대표는 “‘공장식 축산’ 형태로 지속된다면 우리 가족들이 가축질병들이 기후변화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발생률과 확산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축산업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손실, 식량·물 부족, 해양생태계·열대우림 파괴의 주범으로 보고 “‘공장식 축산, 더 나아가 축산업

는 온상이다”라며, 유기농법(유기 축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구제역을 통해 본 식생활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의 ‘공장식 축산’ 형태로 지속된다면 우리 가족들이 가축질병들이 기후변화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발생률과 확산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축산업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손실, 식량·물 부족, 해양생태계·열대우림 파괴의 주범으로 보고 “‘공장식 축산, 더 나아가 축산업

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인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구제역사태 대안모색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토론회 후 ‘채식파티’를 가졌으며, 향후 식량위기 사태와 축산업, 기후변화, 구제역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제역사태 대안모색을 위한 광주 시민모임’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

본교캠퍼스 전경



이환수 이사장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 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과정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에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 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 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061) 381-0000, 1365 (교학과장 : 010-3840-4998)

광주바이블칼리지신(편)입생 추가 모집

교수진

NO	교수 명	과목	경력 및 협력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GBC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립신학대학교(Th.D.), (원)월송교회 담임
3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학원(M.Div.), 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 취득, (원)주님의교회 담임
4	김명호	구약학	전남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이스라엘하브리대학교(PH.D.), 전남대교원동어(PH.D.), 광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Div.), 전남대학교교수, 광주서원대학교 학동목사
5	김원식	교회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 워싱턴대학교교수, (원)호신대학교교수, 목포중앙교회 장로
6	김응렬	실천신학	한국교서대학교, 충신대학교교수, (원)호신대학교교수, 목포중앙교회 장로
7	신동구	실천신학	한국교서대학교, 충신대학교교수, (원)호신대학교교수, 목포중앙교회 장로
8	이기수	역사신학	(원)광주성경교회 담임
9	이길수	부흥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대학원교수, 예수전도단(YWAM) 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부회장, 강사, (원)광주여행교회 담임
10	이박행	전인치유	전남대학교, 충·전신대신학원(M.Div.), 동아인문대학원대학원교수, 사회복지학과 졸업, (원)전인지유선교센터 원장, (원)전봉선 희로교회 담임
11	정종돈	조직신학	(원)광주성경교회 담임
12	정현필	창조과학	한국교대대학원대학원교수, 조선인공대학교수, 창조과학학자, 광주동광교회 장로
13	오안도	제자훈련	전국대학교 졸업, 네비게이션토션교회, ENM선교회선교사
14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졸업, 화려신학대학원대학원교수, (원)한국교대대학원대학원교수, 독립교육법인한인교회 담임, 별기교육법인한인교회, (원)광주은행교회 담임
15	조태익(교류생)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GBC이사 및 교목실장, (원)담양읍교회 담임
16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원)배들중앙교회 담임
17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원)영광연산제일교회 담임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채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미국 최고 수준의 교수 - 선교, 치유, 상당,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인수, 선교사파송(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윤리 그리고 Venture Spirit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 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종국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카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페르시안선교, 중동선교, 등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지역 교회에 단기 인턴쉽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기관을 맺고 매년 학교간 교류 및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